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109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9.09~2026.09.15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공항(갈등), 인공지능(대전환), 재생에너지(이익공유), 정례회(도정질문), 공공기관(유치)
경제·관광	상권(원도심), 노선(항공), 소비(추석), 관광객(숙박), 창업(금융)
지역·사회	공항(갈등), 학생(청소년), 경기(대회), 구조(해양), 치안(인력)

※ 분석 기간 : 26.09.09.~26.09.15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공항(갈등)	-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안 심의 보류 - 갈등조정협의회 법적 근거 논란 확산 - 찬성 측 협의회 참여 거부·의원 집회 논란
	인공지능(대전환)	- 제주 AX 대전환 비전 선포 - AI데이터센터 중심 AX 기획 용역 착수 - AI 산불·병해충 감시체계 전역 확대
	재생에너지(이익공유)	- 풍력발전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추자해상풍력 이익공유화 투트랙 우려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연계 정책 제언
	정례회(도정질문)	- 2025회계연도 결산 경제·산업 성과 미흡 - 재활용품 상시배출제 시범운영 무산 - 제주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적합 판정
	공공기관(유치)	-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 가동...핵심 5곳 선정 - 도의회 이전 촉구...10만 도민 서명운동 - 공공기관·G20 유치 총력 대응 주문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상권(원도심)	- 관광객 감소에 카드·상권 매출 하락 - 서귀포 원도심 상권 벨트화 본격화 - 제주시 원도심 세일페스타·복합센터 개관
	노선(항공)	- 제주~인천 노선 연장·주 3회 증편 - 제주~인천 이용객 만족도 92%…증편 요구 - 제주 국내선 공급 좌석 5개월 연속 감소
	소비(추석)	- 추석·전국체전 겨냥 소비촉진 종합대책 - 추석 차례상 31만4850원…과일 안정세 - 추석 앞두고 체불 점검·명절 특판 확대
	관광객(숙박)	- 8월 제주 방문 관광객 4개월 만에 증가 - 상하이·토론토 겨냥 해외 관광객 유치 - 추자·우도 숙박세일페스타 섬 지역편 운영
	창업(금융)	-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제주 설명회 - 제주은행 ERP뱅킹 DJ Bank 확대 운영 - 제주은행 통화 중 송금 보호모드 시행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공항(갈등)	- 도청 앞 제2공항 촉구 범도민대회 - 찬성집회 참석 도의원 사퇴 요구 확산 - 공항 폭파 협박·관제 불법청취 잇따라
	학생(청소년)	- 중학생 '야차룰' 난투극…2명 현행범 체포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5년새 최고치 - 수능 지원자 7414명…특수교육 수용 부족
	경기(대회)	- 장애인체전 경기장 119 안전망·순찰 가동 - 제주선수단 4관왕·한국신기록 행진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출정·유소년야구 우승
	구조(해양)	- 함덕 표류 관광객 시민 구조·민간구조대 지원 - 한라산 산악구조훈련·가을철 산악사고 주의보 - 소방헬기 한라매 임무 재개…구조 41회 수행
	치안(인력)	- 관광객 1300만 치안 수요…경찰 증원 관철 - 자치경찰·민간경비 3사 야간 치안 안전망 - 경찰청장 체전 안전 점검·공항 협박 배상 유지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9월 9일~9월 15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914건임
 - 정치·행정 분야 336건, 경제·관광 177건, 지역·사회 401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공항(갈등), 인공지능(대전환), 재생에너지(이익공유), 정례회(도정질문), 공공기관(유치)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공항 (갈등)	-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안 심의 보류 ·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승한)는 15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보류를 결정했으며, 4주간 유예를 두기로 해 9월 내 협의회 출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짐. · 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설득에 더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의회 운영 방식 결정과 출범을 10월 이후로 미룸.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공언한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은 출발 단계부터 제동이 걸림.
-------	------------	---

정치·행정	공항 (갈등)	- 갈등조정협의회 법적 근거 논란 확산 ·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놓고 환경부 예규에 따른 협의회와 제주도 조례상 공공갈등 조정 협의회의 지위를 검할 수 있는지, 국가사무를 도 조례로 다룰 수 있는지 등 법적 근거 논란이 제기돼 제주도가 법률 자문을 의뢰함. · 송창윤 제주도 소통·제2공항 담당관은 11일 제454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법적 근거에 이상이 없고 인허가 절차도 갈등조정 대상이라고 설명했으나, 8일 발표된 3대 방침 전반에 대해 도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름. - 찬성 측 협의회 참여 거부·의원 집회 논란 ·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 등 찬성 측은 9일 협의회 참여를 재차 거부하며 주민투표·공론조사·여론조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준비소위 찬성 측 위원인 강효민씨는 15일 담당 공무원의 업무 배제를 요구함. · 양홍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9일 도청 앞 제2공항 건설 촉구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같은 당 양영식 의원이 11일 정례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검증해야 할 위원장의 참석은 부적절하며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공개 비판함.
	인공지능 (대전환)	- 제주 AX 대전환 비전 선포 · 제주도는 11일 제주시 첨단로 카카오 스페이스 5층에서 제주 AX 대전환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인공지능을 산업과 행정, 도민 생활 전반에 접목하는 방향과 기반시설 확충 등 5대 핵심전략을 제시하며 AX 실증도시 도약 구상을 밝힘. · 위성곤 지사는 지금이 제주가 인공지능 대전환의 주도권을 잡을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고, 하정우 부위원장은 섬 전체를 거대한 에너지저장장치로 삼는 에너지 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등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을 잇는 제주형 모델이 제시됨. - AI데이터센터 중심 AX 기획 용역 착수 · 제주도는 16일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제주권 AX 대전환 기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에너지·우주·바이오 등 전략·특화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함. · 용역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연계 방안, 재생에너지 기반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연결 방안을 검토하며 2028~2032년 국책사업화를 목표로 함. 제주도는 11월까지 전문가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기획안을 보완할 계획임. - AI 산불·병해충 감시체계 전역 확대 · 제주도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를 제주 전역으로 확대해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으며, 지난해 제주시 산불감시 폐쇄회로텔레비전에 이어 올해는 서귀포시 미악산·고근산·수악오름 등 9개소를 연계해 구축함. · 제주도의 인공지능 병해충 감시체계 구축은 10일 서울에서 열린 제31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농업기술원은 골드키워 품질 균일화를 위한 비파괴 품질 진단 기술 개발에도 나섬.

정치·행정	재생에너지(이익 공유)	- 풍력발전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환)는 14일 제454회 정례회에서 풍력발전사업 허가와 지구 지정 기준을 전면 손질하는 조례 전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추자도 주민이 추자해상풍력에 투자자로 참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 · 다만 제주도가 주민 자금 투자를 개발이익 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려 하자 논란이 일었고,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의무화하되 도민 전체의 이익 공유 방안도 별도로 마련하도록 두 제도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함. - 추자해상풍력 이익공유화 투트랙 우려 · 원전 2기와 맞먹는 2.37기가와트 규모의 추자해상풍력 조성을 놓고 지구 지정 20년, 발전사업 20년의 사업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의 바람을 특정 업자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도의회에서 제기됨. · 제주도는 기존 공유화 기금에 주민참여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침을 밝혔으나 기존 제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에서 공공관리 원칙 훼손과 민간사업자 특혜를 지적하며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함.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연계 정책 제언 · 제주도의회는 재정정책정보지를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역주민 참여·이익 공유를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았으며, 풍력자원을 공공 자원으로 관리하고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제주 특화 모델 발굴을 주문함. · 제주도는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식에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도민 소득으로 잇는 기후경제수도 비전을 제시했으며, 2025년 말 24.3%에 이른 재생에너지 비중을 뒷받침할 전력 시장 개편 방안도 논의됨.
	정례회 (도정질문)	- 2025회계연도 결산 경제·산업 성과 미흡 ·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환)는 14일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지난해 제주도의 예산 집행을 점검한 결과 경제·산업 분야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 실적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뤄짐. · 김봉현 의원은 15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제주도 관광정책 성과평가가 관광객 수 등 양적 지표에 치우쳐 있다며 성과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동수 위원장은 제주돌문화공원 하늘연못 통제를 들어 사유화 의혹을 제기함. - 재활용품 상시배출제 시범운영 무산 · 제주도가 요일별 배출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특정 동 지역에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를 시범 도입하려던 계획이 무산됐으며, 제주시 0곳·서귀포시 1곳만 참여하면서 시범 운영 대신 요일별 배출제 개선안을 수립하기로 함. · 김덕홍 의원은 용역비 1억원을 살렸지만 상시 배출제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고, 김덕홍·강정범 의원은 제주형 BRT 섬식정류장 존폐를 11월까지 숙의형 공론화로 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도정이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함. - 제주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적합 판정

정치·행정	정례회 (도정질문)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는 15일 제454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김도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리더십과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 의지 등을 검증한 끝에 적합 판정을 내림. · 김 후보자는 제2의 창업 정신을 강조하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와 현장에서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청문회에서는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대표 스포츠 마케팅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됨.
	공공기관 (유치)	-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 가동...핵심 5곳 선정 · 제주도는 정부가 연말 발표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대비해 8일 박천수 행정부지사 주재로 공공기관 제주 유치 전담팀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전 추진 방향과 제주의 유치 상황을 공유하며 기관별 대응 방안을 점검함. · 핵심 유치 희망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5곳으로, 제주도는 유치제안서와 유치 논리를 정비하고 입지·정주 지원방안을 보강하며 막바지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임. - 도의회 이전 촉구...10만 도민 서명운동 · 제주도의회의장 송영훈)는 9일 오후 3시 30분 의사당 앞에서 전체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로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등의 제주 이전을 촉구함. · 도의회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일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와 산업 연계,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고, 마사회·공항공사 유치를 위한 10만 제주도민 서명운동과 도민사회 공감대 확산도 본격화함. - 공공기관·G20 유치 총력 대응 주문 ·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14일 도청 탐라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와 관련해 왜 제주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기관별 이전 논리 구체화와 총력 대응을 당부함. ·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행정혁신과 민선 9기 경제성장 전략, 기본사회 정책 등도 점검됐으며, 제주도는 G20 정상회의를 제주의 가치를 보여줄 상징적 무대로 보고 범도민 역량을 결집하기로 함. 마사회 유치에는 말산업 현장을 강조함.

경제·관광	상권 (원도심)	칠성로 등 원도심 주요 상권 3곳에서 제주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원도심 세일페스타를 열며, 이는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소비촉진 행사로 추진됨. · 제주시 건입동에서는 마을기업 건입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운영하는 김만덕복합센터가 16일 개관해 창업·유헤이션과 문화·컨벤션 플랫폼으로 운영에 들어가며, 서귀포시는 정방동 셋기정을 제1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함.
	노선 (항공)	- 제주~인천 노선 연장·주 3회 증편 · 제주항공은 지난 5월 주 2회로 운항을 시작한 제주~인천 노선을 내년 3월 27일까지 연장 운항하고, 오는 11월 2일부터는 운항 횟수를 기존 주 2회에서 월·수·금요일 주 3회로 늘린다고 14일 밝힘. 당초 10월 말까지 운항할 예정이었음. · 해당 노선은 지난달 말까지 1만1600여명이 탑승했고 평균 탑승률은 87.1%, 외국인 비중은 30%로 집계됐으며, 제주항공은 9월 20일까지 편도 총액 2만 7700원부터 할인 판매를 진행해 접근성 개선을 기대함. - 제주~인천 이용객 만족도 92%…증편 요구 · 인천국제공항항공사가 5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제주~인천 노선을 이용한 국내외 여객 16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주 거주 내국인의 재이용 의향과 전반적 만족도가 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주 2회 운항은 부족하다며 운항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5~8월 평균 탑승률이 88.5%에 이르는 데다 국제선 연결 수요도 많아 증편 필요성이 뒷받침되면서 실제 주 3회 증편으로 이어짐. - 제주 국내선 공급 좌석 5개월 연속 감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8월 한 달 제주 국내선에 공급된 출·도착 항공 좌석은 258만4994석으로 1년 전보다 9만석 이상 줄어 5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좌석 수가 적은 소형 항공기 운항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됨. · 반면 김포~제주 노선은 올해 1~8월 전체 수송객 958만1651명, 운항편수 5만 2078편을 기록했고 제주항공이 197만9360명을 수송해 20.7% 점유율로 5개월째 1위를 지키는 등 노선별 경쟁 구도에는 변화가 나타남.
	소비 (추석)	- 추석·전국체전 겨냥 소비촉진 종합대책 · 제주도는 추석과 전국장애인체전·전국체전이 이어지는 9~10월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 14일 위성곤 지사 주재로 민생경제 상황실 9월 종합회의를 열고 소비촉진·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점검함. ·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적립 한도를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9~10월 소비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위성곤 지사는 추석과 전국체전 소비가 제주 안에서 돌아 지역 상인에게 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추석·전국체전 특수 기대감도 커짐. - 추석 차례상 31만4850원…과일 안정세 · 제주상공회의소가 지난 7~8일 도내 재래시장에서 추석 차례상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비용이 31만4850원으로 집계됐으며,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떨어질 것으로 조사됨. ·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일부 채소류의 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반면 과일

경제·관광	소비 (추석)	가격은 내리거나 보험세를 보이며 안정세를 나타냄.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는 1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함. - 추석 앞두고 체불 점검·명절 특판 확대 · 제주도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업체와 근로자가 대금을 제때 받도록 지난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도내 공공·민간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체불 확인 시 시정과 행정조치를 하기로 함. · 공무원연금공단은 모슬포수협과 서귀포시정, e-제주물 등과 함께 30일까지 공무원연금복지물 추석 특판을 진행하고, 제주도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30일까지 컬러 플랫폼에서 제주 로컬브랜드 기획전을 운영해 판로 확대에 나섬.
	관광객 (숙박)	- 8월 제주 방문 관광객 4개월 만에 증가 · 지난달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4개월 만에 소폭 증가로 돌아섰으며, 외국인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내국인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 한국관광 데이터랩 통계에서도 8월 제주 방문자는 746만여명으로 전달보다 7.9% 늘어남. ·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제주관광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방문객이 늘어난 것이지만, 8월 고용지표에서는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가 7000명 줄어 관광 연관 업종의 체감 경기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상하이·토론토 겨냥 해외 관광객 유치 ·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 주상하이 한국문화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12일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제주·경기 관광홍보 설명회를 열고 중국 상하이 2030세대 개별관광객 유치에 나섰으며, 신청이 하루 만에 마감돼 150여명이 참여함. · 설명회에서는 웰니스와 가족여행 등 맞춤형 콘텐츠가 소개됐고 제주~상하이는 하루 평균 11편의 직항이 운항됨.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12~13일 캐나다 토론토 K-Travel Fest에서 2100여명이 제주 부스를 찾는 성과를 거둠. - 추자·우도 숙박세일페스타 섬 지역편 운영 ·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하반기편에서 섬 지역편이 처음 운영돼 9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제주 섬 여행 숙박 할인권이 제공되며, 올가을 추자도나 우도 등 부속 섬에서 하룻밤을 묵으면 최대 5만원의 숙박비를 아낄 수 있음.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도외 청년의 제주 체류를 지원하는 청춘정거장 in 제주 가을 시즌을 운영해 청년 160여 명이 읍·면지역에 머물며 교육과 체험을 하도록 지원하고, 서귀포시관광협의회는 베이징국제산악트레킹대회에서 축제 유치에 나섬.
	창업 (금융)	-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제주 설명회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이병선)는 지난 4일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제주지역 사업설명회를 열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으며, 예비창업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접수는 17일까지 진행되고 총 1만명을 모집함. · 이번 사업은 1차보다 규모가 2배로 늘고 지원 자격도 완화됐으며, 제주도는 오는 29일 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 도내 창업·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 창업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창업도시 제주 실현 타운홀미팅을 열어 정책 개선 방향을 찾을 예정임.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지역·사회	공항 (갈등)	- 도청 앞 제2공항 촉구 범도민대회 · 제주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업연합회 등 찬성 측 5개 단체는 9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대회를 열고 절차대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촉구함. · 이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갈등조정협의회 참여를 재차 거부하고 주민투표·공론조사·여론조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으며, 2015년 건설계획 발표 이후 11년째 접점을 찾지 못한 찬반 대립이 거리에서 다시 표출됨. - 찬성집회 참석 도의원 사퇴 요구 확산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0일 성명을 내고 전날 찬성 측 5개 단체가 연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대회에 참석한 양홍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을 향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함. · 집회에는 양홍식 위원장을 비롯해 강동우·한동훈·오경남 의원이 참석했고, 정의당·진보당 제주도당은 공정한 검증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라는 규탄 성명을 잇달아 낸 반면 찬성 단체들은 도의원들의 목소리가 정당하다고 맞섬. - 공항 폭파 협박·관제 불법청취 잇따라 · 제주지방법원 민사제5-2부(부장판사 김경태)는 제주국제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A씨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22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제주국제공항 하늘전망대 4층에서 직접 구입한 무전기로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을 몰래 청취한 중국 국적 10대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군사시설 촬영 사실도 드러남.
	학생 (청소년)	- 중학생 '야차룰' 난투극...2명 현행범 체포 ·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10시 1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이른바 야차룰 난투극을 벌인 중학생 2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힘. · 경찰에 따르면 당시 중학생 10여명이 모여 몸싸움을 벌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또래 10여명이 둘러싸고 관전한 것으로 파악됨. 경찰은 체포된 2명 외에 현장에서 도주한 청소년들의 가담 여부도 추적하고 있음.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5년새 최고치 · 제주도교육청이 10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 응답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초·중·고등학생 피해응답률이 7%까지 치솟아 저연령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장애학생 집단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 결정에 불복한 행정심판에서도 괴롭힐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며 폭행·따돌림 주장이 배척되고 학폭위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됐으며, 1심에 불복한 항소심 공방이 이어짐. - 수능 지원자 7414명...특수교육 수용 부족 · 제주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제주지역 지원자는 7414명으로 지난해 7513명보다 99명 줄었으며, 재학생

지역·사회	학생 (청소년)	280명과 검정고시 등 15명이 준 반면 졸업생은 196명 늘어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함. · 특수교육이 필요한 제주지역 학생은 최근 4년 사이 2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도내 특수학교 정원은 9% 증가에 그쳐 과대·과밀 상태에 놓였으며, 오은초 의원이 교육 선택권 제한을 지적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2029년까지 수용 여건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임.
	경기 (대회)	- 장애인체전 경기장 119 안전망·순찰 가동 ·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주요 경기장에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섰다, 지난 1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119구급차와 소방헬기 등을 배치해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함. · 서귀포시안전보안관은 11~16일 경기장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 확인·개선하는 순찰 활동을 벌이고, 서귀포시는 양대 체전에 대비해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 점검반이 경기장 33개소 상·하수도 사전점검을 마치고 급수·준설차량을 상시 대기시킴. - 제주선수단 4관왕·한국신기록 행진 ·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단은 대회 막바지까지 다관왕과 신기록을 잇달아 쏟아내며 금빛 질주를 이어갔고, 15일 육상에서는 2026 아시안패러게임 국가대표 강현중이 남자 200m T37에서 대회 신기록으로 4관왕에 오름. · 유다영도 4관왕에 올랐으며 이선희는 한국신기록 2개를 작성함. 앞서 13일에는 트라이애슬론 경기로 제주시 구좌읍 김녕해수욕장 주차장 입구에서 델문도 입구까지 등 해맞이해안로 일대 도로가 오전 7시 40분부터 11시까지 전면 통제됨.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출정·유소년야구 우승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한태만)는 15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제43회 부산광역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제주선수단 출정식을 열었으며, 선수단은 사전경기 동상·장려상 성과에 이어 본대회 11개 직종에서 메달에 도전함. · 제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김정엽)가 육성하는 제주시야구학교 유소년야구단은 11~14일 충북 보은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결초보는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주니어리그에서 우승했고, 주장 김지율이 최우수선수상을 받음.
	구조 (해양)	- 함덕 표류 관광객 시민 구조·민간구조대 지원 · 15일 오전 9시 41분께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바다로 떠밀려가던 관광객 부녀 2명이 인근에서 레저 활동을 하던 시민에 의해 구조됐으며,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구조된 관광객의 상태를 확인함. ·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10일 오전 제주해경에서 해양재난구조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차량과 구조용 보트 전달식을 열고 민간 해양재난구조대에 구조차량과 구조용 보트를 지원함. - 한라산 산악구조훈련·가을철 산악사고 주의보 · 제주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진수)는 지난 9~10일 이틀간 한라산 관음사 일대에서 가을철 산악사고 대응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으며, 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대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훈련은 드론을 활용해 진행됨. ·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한라산과 도내 주요 오름을 찾는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구조 (해양)	10일 가을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2547건 가운데 650건(25.5%)이 9~11월에 발생함. - 소방헬기 한라매 임무 재개...구조 41회 수행 · 제주도소방안전본부의 다목적 소방헬기 한라매가 지난 5월 20일부터 진행된 2500시간 정기검사를 마치고 11일 낮 12시부터 임무를 재개했으며, 2019년 발대 이후 구급 408회·수색 52회·구조 41회·화재진압 19회 등 총 520건의 임무를 수행함. · 한라매는 구급출동이 전체 임무의 약 78%를 차지함.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간인 14일 오후 2시 47분쯤 서귀포시 신효동 일주동로에서 숙소로 이동하던 50대 여성 육상선수가 전동 휠체어에서 떨어져 골반을 다치는 중상을 입어 구급 이송됨.
	치안 (인력)	- 관광객 1300만 치안 수요...경찰 증원 관철 ·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간 13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넓은 관할지역 등 제주의 실제 치안 수요를 반영한 경찰 인력 증원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본청 정원 증원을 공식 추진함. · 관광객 등 치안 수요에 비해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부서별 인력 배치 재검토, 사적 사건 문의 징계 회부, 향피제 근무 제한 검토도 추진되며, 김 청장은 수사·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을 쇄신하고 현장 중심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자치경찰·민간경비 3사 야간 치안 안전망 · 제주도자치경찰단은 10일 에스원·SK쉴더스·KT텔레캅 등 도내 주요 민간경비 3사와 안심동행 네트워크 구축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야간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합동 안전망 구축에 나서기로 함. · 경찰의 순찰망과 민간경비의 현장 접근성을 결합해 골목상권과 관광객 숙소 등 취약지역을 촘촘하게 살피는 공동체 치안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제주자치경찰단과 도내 주요 민간경비업체 3곳이 협력해 야간 치안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식임. - 경찰청장 체전 안전 점검·공항 협박 배상 유지 ·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지난 10일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해 치안 현황을 살피고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지역 치안과 전국체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경찰청이 11일 밝힘. ·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5개 국제공항에 폭탄 테러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 인력을 출동하게 만든 30대에게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으며, 배상액은 1심 약 3250만원에서 항소심 약 2270만원으로 조정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